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최승재 “규제혁신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무원, 소상공인 등 79명 수상
구분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장
최 옴부즈만 “경제발전의 주역들”



(왼쪽 3번째부터)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선 규제혁신을 위해 올 한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복

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선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로 법제처 구분규

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희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박화선 실장은 기업생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기업생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

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한 ‘참! 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선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에스제이타워 박성진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또 세종기술 송진호·송성모 대표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두 대표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살리기’에 애쓴 조원시장 김병근 대표가 ‘참! 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행장은 수상자인 구분규 부이사관,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넓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절반 “정치 불안으로 직·간접 피해” 중기부 “기업 지원 등 정책 차질없이 추진”

중기중앙회, 긴급현황 조사 진행
응답자 47% “향후 피해 가능성 있어”

비상계업과 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이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주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데다, 앞으로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국내 정치상황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아직 피해는 없지만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46.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12일 사흘간 진행했다. 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 등 총 505명이 설문문에 참여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자의 피해율이

52.4%로 숙박업자(41.6%)보다 조금 높았다. 유형별로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외식업),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숙박업) 등이 있었다.

국내경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한 물음에는 40.4%가 ‘1~2년 간’을 꼽았다. ‘6개월 이내’가 30.1%, ‘2년 이상 장기화’가 17.8%로 나타났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행 중인 경영환경 개선노력으로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가장 높았다.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회의
오영주 장관 “현장 더욱 자주 방문”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부간부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전원 소집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를 1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지역상인회 등 협·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소상공인 애로를 수렴하라”며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비상계업 발생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긴급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내차례 이상 비상간부회의를 수시로 소집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애로를 신속 파악 및 대응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방중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등 협회, 단체와 주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지방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율급등애로를 신고·접수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환율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달부터는 환리스크 헷지 관련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치적 불안 장기화 및 환율 인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연말 특수 기대감이 컸지만 송년행사가 취소되고 외관관광까지 감소하는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도 확정된 만큼 사업 및 정책을 신속 수립하고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현장을 더욱 자주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폴스텐 살균 비데’ 출시

SK매직이 폴스텐 노즐에 전해수 살균을 더해 위생을 강화한 ‘폴스텐 살균 비데’를 출시했다.

16일 SK매직에 따르면 폴스텐 스파 비데는 강력한 살균 능력을 갖춘 전해수로 물통과 물이 흐르는 유로부터 세균에 쉽게 노출되는 노즐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비데에서 관리가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노즐을 폴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변색과 부식에 강하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딥테크 특구기업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협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손잡고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등을 위해 나선다.

대중기협력재단은 16일 서울 중구 상생협력재단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상생협력재단은

▲대기업·공공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등 정보 공유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 ▲대기업·공공기관과 특구기업 간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등 지원 ▲대기업·공공기관과 특구기업의 공동 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행사 공동 개최 및 사업·제도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